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복지상담’ 전공으로의 초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복지상담’ 세부전공 분야 소개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 및 가톨릭사회복지학 전공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강선경 교수입니다. 최근 신설된 복지상담 전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6년에 개설한 사회복지학 전공은 우수한 교수진과 탄탄한 교과내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강대학교의 특징인 엄격한 학사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실천가와 연구자를 배출하여 왔습니다. 일례로 저희 사회복지학전공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에서 10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구의 측면에서도 가톨릭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학생들은 국내 유수의 전문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7년 연구재단으로부터 중점연구소로 선정되어 “4대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의 한국형 모델 및 프로그램개발”이라는 연구를 3년째 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 “잡코디네이터 2급양성” 과정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이 기존의 사회복지학, 가톨릭사회복지학 과정에 더하여 2020년 9월부터 복지상담 과정을 세부전공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복지영역과 상담영역에서 서로 상담과 복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노인은 물론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부터 가족,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복지적 식견과 상담능력을 갖춘 복지상담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여 복지와 상담을 융합한 복지상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복지상담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개척해 나가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복지상담 전공은 현대인들의 물질적 풍요와 편리를 누리는 반면, 다양한 심리문제를 경험하고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에 중점을 두며 유능한 복지전문 상담가를 양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집단상담, 위기개입과 상담, 아동, 청소년 상담, 성상담, 폭력과 복지상담 등을 통하여 복지상담의 실제 과정을 이해하고 상담기술을 배워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정법원, 교도소, 성상담소, 가족상담사로 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